# 영암군, 시책 101개 과제 논의 '혁신영암' 첫발

## 찾아가는 군수 결재 시스템 등 발굴시책 세부 실행 적극 활용

영암군이 2023 혁신 시책 보고회를 갖고 101개 과제를 논의하며 군민행복·혁신영암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8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낭산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혁신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역 경쟁력 향상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5개 실과소 96개 팀에서 101개 혁신 추진과제를 발굴·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전 실과소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혁신과제는 △찾아가는 군수 결재 시스템 △청년정책플랫폼 구축 △일자리사업 성과분석 시스템 도입 △찍먹보 영암투어 △영암 왕인 씨름대회 △미세먼지 안심쉼터 설치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지원 △영암 농특산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홍보 추진 △친환경 도시 목조화 사업 △로드킬 처리 업무 일원화 추진 △공사정보 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공작소 운영 등이 있었으며, 내부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혁신 방안부터 실과소 협업 사업,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분야에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영암군이 군정 혁신 시책 보고회를 갖고 101개 과제를 논의 했다. 영암군 제공

발굴시책을 군정 혁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종합발전 세부 실행계획으로 활용해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를 혁신 원년의 해로 삼고 새로운 영암, 군민이 만드는 영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 관광객 대상 '날마다 생일' 이벤트 완도군 생일도, 특산품 미역 제공

완도군은 생일날 생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날마다 생일'이라는 주제의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주민등록증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날 생일도를 방문하면 전광판 축하 이벤트와 미역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현재까지 30명여명이 축하를 받았으며 올해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추진한다.

서성항에는 생일도 랜드마크인 국내 최대 케이크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관광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완도=최경철 기자

## 출산 여성 건강회복 운동비 지원 해남군, 10만원씩 3개월

해남군은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출산 후 겪는 신체적 변화를 운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 여성의 건강한 양육 마인드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출생 후 3개월부터 3년 이내 출산 여성으로 신청일을 기준 부모와 자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운동시설(수영, 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이용료를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착순 산모 3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신분증, 출산증빙자료,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 안좌면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신안군이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7일 안좌면 읍동리 안좌 예술섬 플로팅미술관 주변에서 자색배롱나무 2000주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신안군의원, 공무원,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안군 제공

# 해남군, 가업 승계 청년에 최대 1000만원 지원

##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도

해남군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과 확산을 위해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18~49세 이하 청년이면서 (조)부모 가업 승계·확장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창업한지 2년 이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인테리어 개선과 브랜드 개발, 광고 홍보비, IT기술 도입, 기술·제품 개발 등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대상자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해남YMC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남군은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도 실시한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사업은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점포환경 개선과 POS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시설 집기류 구매,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카드단말기, 위생·안전관리 등 업체당 200만원 한도(자부담 10%) 내에서 지원한다.

해남군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별 세부내용 및 신청기한은 해남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해남YMCA) 또는 이메일(ymca55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 여성 취·창업 과정 운영 진도군, 자격증반 진행

진도군은 6월말까지 여성플라자 교육장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대비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여성플라자 상반기 프로그램은 총 5개 과정으로 교육 기간은 최고 4개월 과정이며 자격증 취득반과 취미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반은 바리스타 과정이며 취미반은 △홈패션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정리수납 △생활요리 등이다.

주말과 야간반을 개설, 농어업인과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에도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프로그램과 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되는 정리수납 등 취미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 가족어울림센터 본격 운영 해남군, 가족 친화서비스

해남군은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를 완공하고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2억원, 지방비 116억원 등 총 148억원을 투입해 해남읍 구교리 (구)해남공공도서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2층 장난감도서관, 동네카페, 실내놀이터, 소통교류공간, 3층 해남군 가족센터(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동네부엌, 4층 교육장이 조성됐다.

기존 각 시설의 기본 프로그램 외에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 추진하여 가족의 보육과 돌봄,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구심점으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코칭 스쿨과 함께 동네부엌 프로그램으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오감발달 놀이교실, 가족소통 프로그램, 어울림 가족 요리교실, 글로벌 맛집 쿠우쿠우 등이 운영된다.

개관식은 4월 초 열리며 가족어울림센터 개관과 함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센터 내 주차시설 22대 외 인근 공용주차장 25면을 조성해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저소득 아동 대상 놀이키트 지원 강진군 병영면지사협

강진군 병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집콕! 놀이키트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처음 시작한 '슬기로운 집콕! 놀이키트 지원 사업'은 아동과 부모에게 호응을 얻어 올해 다시 추진됐다. 슬라임, 스티커 만들기, 보드게임 등 아동의 연령과 선호를 미리 파악해 저소득층 아동 4명에 각각 10만원 상당의 놀이키트를 전달했다.

김용관 민간위원장은 "저소득 아동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진영 공공위원장은 "도시지역 아동과 생활환경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복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병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오감만족 쿠킹클래스, 청소년 간식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 신안군, 올해 국고확보 대응 교육

## 사례 연구 등 전략 마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7일 전 직원 대상으로 '신안군 국고확보전략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이선호 국고예산팀장이 강의하였으며, '국고예산 편성 과정, 국고 확보 전략, 사례연구' 등의 전략을 설명했다.

군 직원들의 국고예산 확보활동 이해를 높임으로써 도·중앙부처·기재부 등 상위 기관에 적절하고 유연한 대처 능력 및 설득 능력 향상을 이끌어 신안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후 올 신안군 국고 건의사업 컨설팅을 진행했다.

신안군 올 주요 국고건의사업(총사업비 기준)은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세계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 400억원 △1섬 1테마정원 6차산업 육성 300억원 △원예작물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77억원 △염전 주변 작업로 개선 500억원 △고정식 조류발전 보급사업 440억원 △신안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206억원 △신안갯벌 국가해양정원 지정 3000억원 등이다.

이번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얻은 노하우와 대응 전략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및 중앙부처·전남도 시책에 부합하게 작성해 국고 예산 확보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긴축재정으로 강도 높은 세출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안군만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추진할 새로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